

## 기코지 절 본당, 아미타여래상, 남대문

기코지 절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는 본당과 그곳에 소장된 목조 아미타여래상입니다. 두 가지 모두 중요문화재입니다.

현재의 본당은 1544년에 재건되었습니다. 700년대에 지어진 원래 본당은 재건되기 45년 전, 한 세기 동안 전국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시대에 파괴되었습니다. 본당은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절 중 하나인 도다이지 절의 대불전과 유사하여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기코지 절을 건립한 불교 승려 교키는 도다이지 절 창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습니다. 절에 대한 구전에 따르면, 기코지 절의 원래 본당은 도다이지 절 대불전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.

이 절의 본존은 헤이안 시대(794~1185)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목조 아미타여래상입니다. 아미타여래상의 온화한 표정과 늘어뜨린 의복 표현은 당시 유명한 불상 조각가였던 조초(1057년 출생)의 작품을 따른 것입니다. 이 불상은 좌상인데도 높이가 2.33m에 달하며, 경전에 명시된 불상의 높이 기준을 따릅니다. 아미타여래상의 양옆에는 아미타여래의 두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

## 남대문

본당과 마찬가지로, 사찰의 원래 남대문은 1570년대에 파괴되었습니다. 절에서 경전 필사(사경)를 장려하여 모금한 기금으로 2010년에 마침내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. 12m 높이의 남대문 양쪽 칸에는 저명한 조각가 나카무라 신야(1926년 출생)가 조각한 두 구의 인왕상(일본 불교 사찰의 정문 양쪽에 배치되는 수호신상)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인왕상은 문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한다고 여겨집니다.